

Cùm

함께 꾸는 우리의 꿈(Cùm)
Cùm은 라틴어 전치사로 '~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Cùm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길 꿈꾸며...

“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 13,37)

”

발행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편집 청소년사목국 629-8740 주소 483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www.puna.kr 인쇄 주보인쇄사(809-2078~9)

말씀준매

CÙM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친구들은 어떤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 혹시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잘 기억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않아? 한 번 생각해 보며 영상을 보고 이어가자.



영상 시청하기



내용이 참 감동적이지? 영상에서 제작진은 40개월 미만의 자녀들을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몇 가지 질문을 주었어. 사실은 아버지를 주제로 진행한 몰래 카메라였지.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 제작진은 질문에서 '아기'라는 단어를 '아버지'로만 바꾸었을 뿐인데, 젊은 아빠들의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던 거야. 젊은 아빠들은 아기를 생각한 만큼 아버지를 기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지. 젊은 아빠들은 아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었을 때 젊은 아빠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늘은 대림 1주일이야.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지. 새해 첫날을 시작하며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 기억하고 무엇을 잘 잊어버리는지 생각해 보며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보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 ◎ 아멘.

말씀 듣기

1독서 : 이사 63,16ㄹ-17.19ㄹ; 64,2ㄹ-7 복음 : 마르 13,33-37

천천히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느끼며 읽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주
Summary

복음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나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1독서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듭 고백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었어.

복

깨어 있어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어.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33절)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을 말해.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먼 길을 떠나는 집주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지. 내용인 즉,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때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르니 종들과 문기기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 예수님은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어.

1독서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1독서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했어.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63,16)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64,7) 이사야가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많은 죄를 저질렀지. 예언자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던 거야. “당신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64,4 참조)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늘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37절)



우리는 1독서와 함께 복음에서 “깨어 있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 곧 ‘깨어 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야. 반대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상태, 곧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해.

말씀 나누기

1. 나는 평소에 무엇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잊어버리나요? 새로이 맞이하는 해에 나는 어떤 것을 잘 기억하고 싶나요?
2.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은 무엇인가요? 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나요?

정오의 Cum toon



60' 묵상

기도 시작 전

마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기도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항상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어 있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기도 마무리

마음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 영성체 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N 대림 시기
 작은 변화! 작은 도전!

겨울철 난방온도 2도 낮추기(따뜻한 옷 입기)
 (냉난방기 1시간 사용은 연간 어린 소나무 98그루를 심어야 할 양입니다.)